

“넌 모래 온다더니 웬 날벼락”

‘미 전투기 추락 참변’ 김석임씨 담양 고향집

식음 전폐한 노모 통곡만

“내 딸아 내 딸아.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어찌 네가 먼저 가느냐.”

10일 낮 담양군 무정면 봉안마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발생한 미 해병대 전투기 추락사고로 졸지에 딸과, 외손녀, 증외손녀 등 4명의 가족을 한꺼번에 잃은 국양례(88) 할머니는 딸의 생전 사진을 붙잡고 오열을 그치지 못했다.

국양례 할머니는 전투기 추락 참변으로 딸 김석임(60)씨와 외손녀 이영미(36)씨, 그리고 증외손녀 윤하은(2), 하영(행후 2개월)양 등 일가족 4명을 잃었다. 딸 김씨가 같은 마을로 출가해 한 마을서 함께 살아온 국양례 할머니는 딸 가족의 불행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이틀동안 식음을 전폐한 상태였다.

“시누이는 효심이 깊고, 동네 일을 도맡아 할 정도로 선한 사람이었다. 비록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늦게 시집간 딸이 잘 산다고 좋아했었는데.”

시누이 김씨의 사진을 손에 든 들케 권복남(62)씨도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더구나 김씨가 이미 한차례 귀국을 연기한 데다, 오는 28일께 귀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은 더했다.

김씨는 6개월 전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늦은 나이에 출산한 큰딸 이영미씨의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서였다.

간호사였던 이씨는 2년 전 남편(윤동운·37)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영주권을 얻었으며, 최근 두 번째 딸을

출산하면서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다. 비록 이국땅으로 떠났지만 틈틈이 부모에게 용돈도 보내고 남동생들의 결혼도 책임지겠다는 착한 딸이었다.

더구나 극적으로 복수는 구했지만 남편 윤씨도 목포 출신으로 중학생 때인 1989년 누나와 함께 이민을 간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목포에는 현재 윤씨 가족들이 살고 있다.

봉안마을 주민들도 김씨 집을 찾아

와 슬픔을 함께 나눴다. 김씨의 남편 이상현(64)씨 등 다른 가족들은 이날 사고 수습을 위해 미국 현지로 출국했다.

앞집에 살고 있는 국복순(71)씨는 “김씨 가족의 비보를 전해 듣고 동네가 다 울었다”며 “평소 조그만 음식까지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던 착한 심성 때문에 동네 사람 모두가 슬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김씨가 큰 외손녀를 고향에 데리고 와서 재통부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잊혀졌다”며 “효성까지 물려받은 딸이 미국에서 잘 지낸다고 해서 이전 좋은 일만 남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다니 하늘도 무심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담양=안현주·노정훈기자 ahj@



전투기 추락사고를 당한 이영미(왼쪽)씨 부부, 남편 윤씨는 사고 당시 집에 없어 화를 면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발생한 전투기 추락사고로 딸 김석임씨와 외손녀, 증외손녀 등 일가족 4명을 한꺼번에 잃은 국양례 할머니가 딸 사진을 앞에 두고 오열하고 있다. 옆은 김씨의 올케인 권복남씨. /나명주기자 mjna@

또 엉터리 친환경 농산물 인증

광주지검, 보조금 가로챈 전남지역 업체 적발

허술한 심사를 통해 보조금을 가로챈 전남지역 친환경 농산물 인증 업체가 또 다시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업체의 보조금 횡령 등 구조적 비리가 많을 것으로 보고 광주·전남지역 다른 친환경 인증 업체

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10일 친환경 농산물 인증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부풀려 타낸 혐의(사기)로 전국 두 번째 규모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인

전남지역 소재 S사 운영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3일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인 N사 운영자들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친환경 농산물 심사를 부실하게 하고 분석 비용을 부풀

려 지자체에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전남 지역 15개 시·군에서 1억8천900만원 상당을 분석비 보조금 명목으로 더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S사는 2006년 구례군으로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신청 기관으로 지정된 뒤 올해까지 구례군 일대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업무를 싸늘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광주·전남지역 다른 인증기관 10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非行 자녀 둔 부모 특별 교육 받아라”

가정 책임 강조...광주지법, 21명 수강 명령

법원이 비행(非行)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 특별 교육 수강명령을 하는 등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개정 소년법이 시행된 지난 6월22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전국적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 1만4천57명 중 1천241명(8.8%)의 부모나 조부모·친척 등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수강명령’이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경우 지난 6월2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총 21명의 소년범 부모와 친·인척 등에게 특별교육 수강명령을 내렸다.

광주지법 가정지원 소년 1 단독 박재현 판사는 지난 8일 환각물질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한 A(여·13·중2)양과 B(13·중2)군에게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보호자인 이모와 아버지에게 각각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다.

소년 2 단독 이예슬 판사도 지난달 3일 같은 또래를 친구들과 함께 폭행한 C(17)군에게 보호처분을 내리고 C군의 아버지에게 특별교육 수강명령을 내렸다.

지난 6월 22일부터 지난달 20

일까지 전국적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 1만4천57명 중 1천241명(8.8%)의 부모나 조부모, 친척 등 보호자들이 특별교육 수강명령을 받았다.

지난 6월22부터 시행된 개정 소년법은 적용대상을 ‘만12세 이상 만20세 미만’에서 ‘만10세 이상 만19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한편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보호자에게 소년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수강하도록 명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명령을 받은 보호자는 관사의 결정에 따라 4개월 또는 6개월 안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보호자를 위한 교육은 8시간이나 10시간 프로그램 등 교육기관마다 다른데 보통 부모·가족의 역할, 자녀와 대화법, 청소년에 대한 이해, 마음의 편지나누기, 세속식 등 아이를 이해하고 대화하는 기술을 배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7675) 김장두



다 좋은 건축·산업자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관행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광원 : 061) 337-0571

부츠 때문에 선후배간 주먹질

상다발

○자매처럼 지내오던 선·후배가 ‘부츠’ 신발 때문에 서로 주먹질을 하다 경찰서행.

○1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자신들의 원룸에서 서로 폭력을 휘두른 A씨(여·29)씨와 B씨(여·25)씨를 폭력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후배 B씨의 부츠를 허락없이 신고 나간 것이 화근이 돼 주먹질까지 번졌으며,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의 부츠가 너무 예뻐서 한 번 신고 나갔는데 계속 잔소리를 해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

○이에 B씨는 “몇 번 신고도 않은 새 신발을 함부로 신고 나간 것에 대해 잔소리를 줬 했는데, 다짜고짜 때리기에 맞고 만 있을 수 없어서 함께 싸운 것일 뿐”이라고 응수.

/김철호기자 khh@kwangju.co.kr

“3만원 어치 식사도 청탁 있으면 뇌물”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청탁하며 불과 3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했어도 뇌물 공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 조합장 김모(6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02년 12월~2003년 1월

2차례에 걸쳐 마포구청 주택과장 김모씨를 만나 모두 3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고 3월에는 현금 500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김씨가 거절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마포구청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사교적·의례적 범위에서 벗어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승용차-통근버스 충돌 장성서 13명 중경상

10일 오전 7시10분께 장성군 남면 분향리 중앙동 마을 앞에서 이모(60)씨가 운전하던 코란도 승용차와 김모(62)씨가 운전하던 25인승 통근버스가 정면 충돌했다.

/장성=류종성기자 yjs52@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장성모 닭가공공장 직원 11명과 코란도 탑승자 2명 등 모두 13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코란도 운전자 이씨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novita

신뢰할 수 있는 10년 세월의 풍부한 경험과 권록의 비전문기업!

노벨이심플, 효도심플, 심플부엌등수출!

노벨이심플, 효도심플, 심플부엌등수출!

비데프라자 | ☎062) 515-1144

이오니아 1석 2조 레스티벌!

발달력 아온수기 워밍업실 개선효과 워가거로 로켓청소기 중정형사!

아온수기 구매시 로켓청소기 1+1 증정 행사를 실시합니다. 발달력 아온수로 건강도 챙기고 로켓청소기까지 혜택 받으세요!

이제 바로 1석 2조! 온·오프라인, 이오니아, 이오니아, 워밍업실, 로켓청소기, 중정형사

이오니아 1544-1219